日, 24시간 무인 템플호텔 선봬

일련종 쇼덴지, 신도 감소에 사찰운영 돌파구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전국에는 7만7000개소 이상의 사찰이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사찰이 편의점보다 많다고 전해지지만, 그 중 30% 이상의 사찰은 신도 감소 등의 이유로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고자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쿄의 한 사찰이 24시간 무인호텔을 개시해 화제다. 이 흥미로운 소식을 8월 2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 '엑사이트재팬' 등이 보도했다.

도쿄도 미나토(港)구에 소재한 일련종 사찰 쇼덴지(正傳寺)는 지난 7월 25일 사찰경영 전문 업체 '셰어윙사'와 합작, 완전 무인화 시스템을 적용한 '템플호텔 쇼덴지'를 오픈했다. 호텔을 오픈한 쇼덴지의 주지, 타무라 사다히로 스님은 "5년 전부터 사찰의 신도가 감소하고, 사중에서 관리하던 묘지들이 차례로 무연묘가 되면서 사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무인호텔 개업의 계기를 설명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호텔을 개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숙박업을 위한 새로운 인력고용, 시설유지비용에 대한 여유가 없었기에 AI를 사용한 무인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숙박객은 입구의 TV화면을 통해 체크인과 체크아웃은 물론, 경내의 법당이나 회의공간도 예약할 수 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만큼 사경과 염주 만들기 같은 불교 체험활동도 신청할 수 있다. TV화면엔 비구니스님의 아바타가 나타나 스태프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아바타와 AI프로그램은 템플호텔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이다. 또 무인화 시스템과 맞춰 24시간 언제나 숙박객에 응대할 수 있다.

호텔 부대비용 절감 위해서
AI 도입해 숙박객 응대 나서
사찰 슈쿠보 모티프로 건립
지역대학과 프로젝트 연계도

셰어윙사는 템플호텔에 대해서 "전통적인 사찰의 숙박시설인 슈쿠보(宿坊)를 모티프로 했다.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관광유치와 교육환경의 제공, 일손 부족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가능성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셰어윙사는 이곳 쇼덴지 외에도 2017년에 기후현(岐阜県)에 소재한 사찰 젠코지(善光寺)에 템플호텔을 개설한 바 있다.



도쿄에 개업한 24시간 무인호텔 템플호텔 쇼덴지. 사진출처=엑사이트재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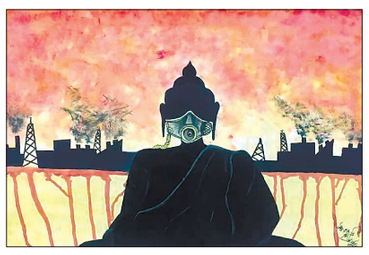
한편 템플호텔 쇼덴지는 지역대학인 토요가쿠인대학(東洋学園大学)과 산학연대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동 대학의 경영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총 10개의 팀은 각자 사찰과 그 주변 환경 등을 조사, 호텔에 어울리는 체험활동과 경영방법을 발표했다. 전통적인 설법과 명상체험을 시작으로, 사찰에 모셔진 불보살을 모티프로 한 상품개발 등이 제안 됐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혼조 카요코 교수는 "사찰의 강점을 살린 젊은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회"라며 우수팀의 기획을 호텔에서 직접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혼조 교수는 "이를 통해 지금껏 없었던 사찰 산업마케팅이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도 "지금까지 인연이 없었던 사찰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사찰이라는 귀중한 사회적 자본으로 사회공헌을 이룰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쇼덴지와 셰어윙사는 "사찰과 사회가 함께 나아가며, 사찰과 인연이 된 모든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사찰의 원점회귀' 로서의 롤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앞으로의 운영기조를 전했다.

그림 한 점에 소송 당한 美대사관

'환경보호 미술전' 작품 중 불교모독 논란


논란이 된 작품 '공장으로 인한 대기오염'. 미 대사관은 현재 SNS에서 해당 작품사진을 삭제했다. 사진출처=이라왓디

미얀마의 불교민족주의자들이 "불교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주 미얀마 미국대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이 기각돼 화제다. 8월 1일 미얀마의 인터넷 언론 '이라왓디'는 소송과정과 기각사유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주 미얀마 미국대사관에서 주최한 환경보호 미술전이다. 양곤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전시회는 신진작가들을 중심으로 열렸으며, SNS를 통해 홍보됐다. 그러나 출품된 작품 가운데 '공장에 의한 대기오염' 이라는 그림에 논란이 일었다.

'공장에 의한 대기오염' 작품에
방독면 쓴 부처님 실루엣 나와

그림은 방독면을 쓴 부처님 실루엣을 뒤로 매연을 뿜어내는 공장들이 묘사됐다. 작가는 "공장들은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삼림을 파괴해 국민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원인으로서 공장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림이 게시되자 미얀마 불교계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부분 "부처님과 불교를 모독하고, 주최국인 미얀마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부처님의 이미지에 방독면을 씌운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홍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인 대사관이 SNS에 이 그림을 게시한 것은 미얀마 내부에 종교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등장했다.

한편 불교민족주의자로 유명한 우 빠르마우카 스님은 "부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미얀마 불교신자들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왔다"며 스콧 마르시엘 주 미얀마 미국대사와 그림을 그린 화가, SNS 홍보담당자를 제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미 대사관은 SNS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이 작품이 다루려한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한 재고찰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전시의 목적은 미얀마와 미국의 우호증진이며, 미국정부는 모든 종교와 문화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우인 객원기자

관능적 사찰벽화, 표현의 자유인가?

일본 천년고찰 코쿠죠지
사찰 관련 위인 새 벽화
문화재 훼손 도마 올라

일본 니이하마(新潟)현 츠바메(燕)시에 소재한 천년고찰 코쿠죠지(国上寺)의 본당 벽화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4월 완성된 벽화는 사찰과 관련된 위인들을 관능적으로 미화한 일본화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시의 교육위원회는 "문화재 훼손이자 교육적으로 적합지 않다"며 행정지도에 나섰다고 '자이케이신문' '제이 캐스트 뉴스' 등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코쿠죠지는 709년 당시 일왕의 발원으로 창건돼 니이하마현 최고(最古)의 사찰로 법등을 이어오고 있다. 긴 역사와 함께 일본의 유명한 인물들도 사찰의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코쿠죠지는 이 역사인물들을 모델로 관능적인 벽화를 제작, 지난해 4월 본당 벽에 설치해 공개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본당의 벽화, 일본화가 키무라 료코의 작품이다. 사진출처=코쿠죠지 유튜브

모델이 된 인물은 미나모토노 요시츠네(源義経), 무사시보 벤케이(武蔵坊弁慶), 우에스기 켄신(上杉謙信), 료칸선사(良寛禅師)와 절의 설화에 등장하는 요괴 슈탄동자(酒呑童子)까지 5명이다. 이들 5인이 함께 노천탕에서 온천을 즐기는 모습을 묘사한 이 벽화는 일본화가 키무라 료코(木村了子)가 제작했다.

사찰측은 해당 벽화 조성 취지를 "젊은이들이나 여성들이 사찰과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관능적인 위인들의 모습이 여성의 본능을 자극할 것이라 본다. 지금까지 사찰에 없었던 독특한 세계관을 느껴주길 바란다"며 벽화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실제 벽화가 공개된 후로 평소 3배에 달하는 참배객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츠바메시 교육위원회는 "코쿠죠지의 본당은 시 문화재로 지정돼있다. 사찰측이 원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벽화를 설치했다"며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지도 공문을 교육위원회 명의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내의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적으로 부적합하기에) 견학 및 교외활동으로 코쿠죠지 본당을 제외할 것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지도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 내에서도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여론으로는 "사찰 본래의 길을 벗어났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예술계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측은 "문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는 현상, 사찰이라고 도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사찰의 행보에 지지를 표명했다.

코쿠죠지 측은 "원상변경 허가신청은 사찰의 실수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이다. 행정지도를 받은 후 다시 허가를 받아 벽화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 당국과 대립하려는 생각은 없지만, 새로운 사찰문화를 위해서 관련된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英 로열웨딩, 달라이라마 초청 계획"

해리왕자와 신부, 성공회 전통에 계획 접어

지난해 열린 영국 해리 왕자와 미국 여배우 매건 마클의 로열웨딩 초기 계획에 달라이라마의 법문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월 2일 티베트 관련 뉴스 전문매체인 '티베탄 저널'은 영국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영국 왕위 계승 서열 6위인 해리 왕자는 지난해 5월 영국 윈저성 세인트 조지 성당에서 로열웨딩을 치렀다. 신부인 매건 마클이 미국인임을 고려해 미국 성공회 마이클 커리 대주교의 주례로 열린 이 결혼식에, 당초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법문과 주례가 계획됐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티베탄 저널은 영국일간지 '데일리 메일'을 인용해 "영국 성공회의 총지도자인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매건 마클 왕자비에게 특별한 하객을 초청할 수 있다고 전했고, 왕자비는 달라이라마를 초대하길 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영국매체 '익스프레스 UK'는 "매건 마클 왕자비는 결혼을 축복하는 법문을 달라이라마에게 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실제 매건 마클은 명상과 요가에 심취해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찰스 왕세자가 매건에게 달라이라마를 초청할 것을 권했다고 한다. 달라이라마가 실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초기 단계에서 초청이 고려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결정 단계에서 로열웨딩이 전통적으로 성공회식으로 거행됐고, 영국왕실이 성공회의 가장 큰 지지자라는 점, 달라이라마가 불교의 출가자라는 점에서 초청은 취소됐다. 조우인 객원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황의동 도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분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